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참고자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9. 5. 10(금)	담당부서	동북아통상과 무역정책과
담당과장	한철희 과장(044-203-5690) 박재영 과장(044-203-4020)	담 당 자	김보연 사무관(044-203-5695) 황호준 사무관(044-203-4025)

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인상(10%→25%) 관련 산업부 「민관합동 실물경제 긴급대책회의」 개최해 수출 점검

• 업종·시장별 수출 모니터링 강화
•수출다변화, 소비재 수출 방안 등 신흥시장 개척 확대

□ 미국 정부는 5.10(금) 13시 1분(현지시각 00시 1분)부터 **2,000억불 규모의 對中 수입품목**에 대해 **관세를 인상**(기존 10%→25%)**함**

* 중국산 5,745개 품목(자동차 부품, 중저가 가전, D램 모듈 등)에 대해 관세인상이 시행될 예정이며, 동 관세 인상은 5.10일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서부터 부과

□ 미국의 관세인상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5.10(금)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**「민관합동 실물경제 긴급대책회의」를 개최**하여 **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함**

※ 美中 무역분쟁 대응 「민관합동 실물경제 긴급대책회의」 개요
- ㅇ일시/장소 : '19.5.10(금) 14시,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(11층)
- ㅇ참석 : 산업부 무역투자실장(주재), KOTRA·무역협회·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, 8개 업종별 단체(반도체, 디스플레이, 철강, 석유화학, 섬유, 기계, 자동차, 전자기기), 산업연구원,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

○ 금일 대책회의에 참석한 수출 지원기관과 업종별 단체는 2,000억불 규모의 품목에 대한 미국의 對中 관세율 인상이 **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 논의**함

○ KOTRA, 무역협회, 무역보험공사 등은 미국의 대중(對中) 관세율 인상이 중국, 아세안, 미국 등 **주요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**을 점검하고 **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지원을 강화**해 나가기로 함

□ 산업부는 미·중 무역분쟁 초기단계부터 관계부처(기재부, 외교부 등), 수출지원기관(KOTRA, 무역협회), 연구기관(산업연구원, 대외경제정책연구원), 업종별 단체와 함께 **실물경제 대응반을 운영**하며 대응해 왔음

○ 산업계는 금번 관세인상 조치가 둔화되는 세계 교역 여건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함

□ 이에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품목별·시장별 수출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, 우리 기업들이 미중 무역 분쟁의 어려움 속에서 틈새시장 개척, 신남방·신북방 등으로 수출다변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

○ 이를 위해, 금년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배정된 추경예산(3,223억원)을 무역금융, 해외마케팅 지원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고, 수출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며,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등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도 대폭 강화하기로 함

○ 또한, 정부는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FTA 협상을 가속화하는 등 선제적 통상 대응을 강화하여 미래 주력시장을 개척해 나갈 예정임

□ 이날 대책회의에서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향후 미·중 무역분쟁 전개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**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가능한 모든 대응역량을 총동원**하겠다고 밝힘

○ 정부는 미국의 對中 관세율 인상에 따른 **업종별 수출영향을 분석**하고, 통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**수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**하기 위해 **「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」**(5월), **「디지털 무역 촉진 방안」**(6월), **「수출시장 다변화 방안」**(7월) 등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김보연 사무관(☎ 044-203-569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